

대학도서관의 주제별화 적용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doption of the Subject divisional plan in University libraries

정 재 영(Jae-Young Chung)¹⁾

남 태 우(Tae-Woo Nam)²⁾

목 차

I. 서론	IV. 국내 대학도서관의 주제별화 적용과정
II. 주제별화의 개념	1. 태동기
III. 미국대학도서관의 주제별화 적용과정	2. 발전기
1. 태동기	V. 국내 대학도서관의 주제별화 방향 전망
2. 발전기	VI. 결론
3. 전환기	

초 록

국내에 주제별화를 적용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적용에 따른 면밀한 검토와 분석작업 그리고, 적용이후의 지속적인 조사와 평가가 수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주제별화 경험이 우리보다 앞선 미국의 사례 즉, 주제별화 적용 시기의 상황과 발전과정 및 쇠퇴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대학도서관과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변화하는 도서관 주변상황에 따른 적절한 적용방안과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예측해 보았다.

주제어 : 주제별화, 주제별부문화, 주제별도서관, 대학도서관 조직

Abstract

As the number of university libraries which adopt subject divisional plan in Korea is increasing, lots of problems are coming out, which results from a lack of close examination and analysis before adopting, and the lack of continuous checking and evaluation after adopting. Therefore, this article will do the following. First, study the example of the U.S. university libraries which have a longer history of subject division adoption than Korea. It covers going through the situation at the moment of adopting, the phase of development and decline. Second, analys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libraries in U.S. and Korea on the basis of first study. Finally, study the reasonable adoption method considering the changing circumstances around libraries and forecast the future movement in adopting the subject division plan in the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Key Words: Subject divisional plan, Subject department, Subject-oriented service system,
Library organization

I. 서론

1) 서강대학교 도서관 사서

2)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대학도서관의 조직구조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도서관이 정보환경과 이용자들의 변화를 비롯한 도서관 주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자료의 구분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주제별화 또한 ‘가장 진보한 대학도서관 서비스’이자³⁾ ‘도서관 서비스 중에서 가장 유용한 조직 형태’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기도 하지만 도서관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도서관의 현실과 장서량 그리고, 사서인력을 감안한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제별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작업 없이 시도되어지고 이후 적용과정에 대한 평가와 지속적인 조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제별화의 경험이 우리보다 앞선 미국의 사례 즉, 주제별화의 도입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적용에 따른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국내 대학도서관에 적용되고 있는 주제별화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대학도서관 주제별화의 적절한 적용방안과 앞으로의 진행방향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 대학도서관 주제별화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해 주제별화의 변천과정과 시대별 특징을 분석하고 국내 주제별화 진행과정과의 연관성 및 적용과정에 있어서의 특징을 비교해 보았다.

II. 주제별화의 개념

Dewey는 DDC1판 서문에서 모든 지식을 만족하게 할만한 분류체계의 불가능을 얘기하며 대학에서의 이론적 조화 및 정확성 그리고, 도서관의 요구도는 각 학문분야의 편의성에 계속적으로 희생당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철학적 이론 및 정확성은 실제적 유용성에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⁵⁾ 즉, 논리성은 실용성에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대학도서관의 주제별화도 자료의 구분에 있어 실용적인 면을 강조한 Dewey의 십진분류법과 같은 의미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는 주제별화에 관해 “대규모도서관에서 인문과학, 사회과학 등 큰 주제별로 장서 및 서비스를 나누어 행정단위로 정하는 것(divisional plan)과, 대규모 일반도서관에서 도서관 장서와 봉사를 주제의 전문화(specialization)에 따라 행정단위로 세분화한 것(subject department)”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⁶⁾ Harrod용어사전에는 subject department를 “참고용이나 대출용의 구분없이 과학과 같은 특별한 주제에 관한 모든 도서들을 소장하고 있는 대규모도서관의 한 부문”⁷⁾으로, ALA용어사전에는 “공공도서관에서 과학, 기술 등으로 구분한 것과 같이 대규모일반도서관에서 도서관 장서와 봉사를 주제전문화에 따라 관리단위를 세분화한 것”⁸⁾으로 정의하고 있다.

3) Arthur M. McAnally, "Co-ordinating the Departmental Library system," *Library Quarterly* 21(April 1951), p.113.

4) Harvie Branscomb, *Teaching with Books: A Study of College Libraries*, (Chicago : 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 and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40), p.136.

5) 남태우, “DDC초판과 2판의 비교연구,” 문헌정보학논총(이재철교수정년기념논문집), 1994, p.199.

6) 사공철 등편, 문헌정보학용어사전(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6), p.339.

7) Raymond John Prytherch, *Harrod's Librarians' glossary*, 8th(Aldershot : Ashgate Pub, 1995), p.619.

주제별화가 이처럼 조직분화의 기초로서 기능이나 형태가 아닌 주제를 사용한 경우를 의미하기는 하지만 이에 따른 조직 유형은 다양하며 일정한 기준이란 없다.⁹⁾

주제별화 계획은 자료의 구분 및 서비스에 있어 주제를 기초로 한다 즉, 범위가 넓은 주제별로 자료를 구분하고 주제사서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조직구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William F. poole은 “모든 자료의 분류는 각각의 층과 자체 열람실을 가진 4개의 큰 영역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고 최초로 주제별화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¹⁰⁾

Johnson은 적용방식에 있어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주제별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도서관의 서비스 기능들이 하나 이상의 넓은 주제영역에 의해 배치된 경우로 보통 사서책임자나 그의 대리역할을 하는 사서 아래에 두개나 그 이상의 관련 주제분야들이 집단화되어 있는 경우

2. 도서관내 전 자료에 대해 모든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된 경우

3. 도서관에 의해 일반적인 것과는 반대되는 전문화된 주제적 도움과 장서개발인력이 제공된 경우¹¹⁾

조직구조에 있어 주제별화란 자료의 구분이나 서비스가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조직구조 즉, ‘주제’가 도서관 조직과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구조를 말하는데 분관 형태로 되어있건 아니면 하나의 건물내에서 이루어지건 대학의 특성에 맞게 몇 개의 단위로 학문을 구분한 후 이곳에 해당 주제의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비치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주제전문지식을 갖춘 주제사서를 확보해 이용자들의 주제요구를 수행하는 형태를 말한다.¹²⁾ 또한, 전통적인 기능조직과 달리 소장자료를 주제 또는 학문영역으로 분할할 다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직단위를 유기적으로 편성하는 봉사지향적 조직 즉, 일반관리를 제외한 자료중심의 주요 기능이 과(팀)수준이 주제별 조직단위 또는 완전 분산형으로 수행되는¹³⁾ 조직구조와 함께 전체적인 조직구조가 기능형 조직구조로 되어 있지만 과 단위의 하부조직으로 주제별화 조직을 운영하거나 자료의 구분에 있어 각각의 주제별 자료실 또는 열람실을 운영하는 혼합형 조직구조의 경우 즉, 실제적인 서비스의 축이 주제별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는 이용자가 특정주제를 가지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 관련주제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구하는 데서 오는 불편과 시간낭비를 최소화하고 도서관의 이용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기능을 극대화하며 도서관에 입수되는 자료 뿐만 아니라 관련 주제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정리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가공을 통해 제공하는

8) Heartsill Young, Terry Belanger,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3), p. 220.

9) Edward Roy Johnson, *The Development of the Subject-Divisional plan in American University libraries*,(ph.D, University of Wisconsin, 1974), p.5.

10) William F. Poole, *The Construction of Library Buildings*, in U. S. Bureau of Education. Circulars of Information, No.1 (Washington: U. S. Govt. Print. off., 1881), p.12, Edward Roy Johnson 1974, p. 46에서 재인용

11) Edward Roy Johnson, 1974, *op. cit.* p.6.

12) 남태우, 정재영, “대학도서관의 주제별 운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 2(2003), p.170.

13) 윤희운, *대학도서관 경영론*(대구 : 태일사, 2002), p.119.

시스템을 말한다.

III. 미국대학도서관의 주제별화 적용과정

미국 대학도서관 주제별화의 전체적인 적용과 쇠퇴의 과정을 분석해 본 결과 대학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발전기이자 대학교육의 철학적 변화가 시작된 1890년대부터 공공도서관들의 주제별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대학도서관에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1930년대 말까지를 대학도서관 주제별화의 태동기, Brown대학에 주제별화가 최초로 도입된 1939년부터 대학도서관에 점차 주제별화 도입이 줄어들기 시작한 1960년대 중반까지 약 25년간을 주제별화의 발전기 그리고, 학부도서관개념의 도입과 계속적인 이용자들의 학과도서관에 대한 요구 그리고, 대학규모의 확장에 따른 적절한 주제별화의 대안제시 부족에 따라 점차 주제별화를 철회하기 시작한 1960년대 중반 이후를 새로운 조직시스템으로의 전환기로 구분할 수 있다.

1. 태동기 : 1890~1930년대 말

대학교육에 대한 철학의 변화는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대학도서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의미에서 1890년부터 1930년대 말까지의 기간은 미국내의 많은 대학도서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대학교육의 중요한 발전기이자 대학도서관의 주제별화를 위한 준비기였다.

물론, 이시기의 대학도서관들은 규모가 작고 자료의 보관상태도 좋지 않았으며 열악한 직원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대학의 많은 학자들은 연구를 위해 자신의 서고 즉, 개인도서관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1893년 후반에 이루어진 통계를 보면 미국내 200여개 대형 대학도서관중 단지 1/3만이 정식사서를 채용하고 있었다.¹⁴⁾ 하지만, 점차 교육에 있어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1875년부터 1900년 사이의 미국대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발전은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던 취미나 직업위주의 교육에서 진정한 전문가 양성으로의 학문의 전환이었다.¹⁵⁾ 이에 따라, 이용자들도 점차 보다 거대하고 질 좋은 장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 시기의 미국 대학은 전통적인 대학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유연성’이 대학의 새로운 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발전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상에 따라 점차 토착화된 교육개념들과 다른 나라들 특히, 독일로부터 유래된 사상 그리고, 전통적인 대학 교육과정들이 혼합되어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로부터 유래된 학문에 있어서의 세미나방법론은 18세기 독일에서 자생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실험과 실험방법론의 결합, 역사적방법론, 그리고 비교방법론, 필요한 도서에의 직접접근 등의 교육적인 면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교수진들은 도서를 기증하거나 종종 그들의 개인장서까지 기증함으로써 학생들을 위한 세미나 도서관이 형성되게 되었다.¹⁶⁾

이러한 사상과 함께 세미나도서관(Seminar Library)이 대학교육의 전환기에 도입되면서

14) Edward Roy Johnson, 1974, *op. cit.* pp.8-9.

15) Arthur E. Bestor,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Scholarship, 1875-1917," *Library Quarterly*, 23(july, 1953), p.165.

학과도서관 발전에 영향을 주었는데 일례로 1817년 법학도서관으로 최초의 포괄적인 학과도서관을 시작한 Harvard대학의 경우 현재, 약 210개의 학과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학도서관의 통합적 분산화(Coordinated decentralization)유형을 대변하고 있다.

초기의 학과도서관들은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전공도서들을 적절하고 충분하게 제공해주는 중앙도서관이 없었기 때문에 법학, 의학, 신학대학을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중앙도서관의 불충분한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방어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¹⁷⁾

1890년대 대학에서의 연구가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Harvard대학(Harvard University), Chicago대학(the University of Chicago) 그리고 Columbia대학(Columbia University)을 중심으로 학과의 수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는데 일례로 Chicago대학의 경우 생물학(Biology)이 단지 1년 후에 동물학(zoology), 식물학(Botany), 해부학(Anatomy), 신경학(Neurology) 그리고, 생리학(Physiology)의 5개 학과로 나뉘어졌다.¹⁸⁾

이러한 학과의 계속적인 분화와 함께 학과, 학교 및 대학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전공서적의 보유와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위치하기를 원하는 교수들의 요구 즉, 중앙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불만족과 이용자 수의 증가에 따른 중앙도서관 장서 사용의 어려움, 대학건물들 사이의 거리, 학과 사무실과 실험실에 보유하고 있는 많은 자료들로 인해 점차 학과도서관(departmental libraries)이 발전하게 되었다.¹⁹⁾

Brown 대학(Brown University)의 경우에도 독립적 운영에 대한 교수들의 강력한 요구, 중앙도서관의 이용자 증가, 느린 서비스, 불충분한 도서관 직원 등이 원인이 되어 대학 캠퍼스내에 광범위하게 학과도서관이 확산되었으며 1923년에는 18개의 학과도서관을 보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점차 학과도서관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중앙도서관의 조정과 통제가 없는 개별적인 운영과 불충분한 수의 사서에 의해 체계적이지 않은 정리와 배열이 이루어지고 전문사서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 제각각 다른 분류체계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서지통정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학과도서관별로 광범위한 주제의 자료 수집에 따라 엄청난 비용의 낭비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도서예산 통정의 결함, 도서관 자료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 안정성의 결함, 서지적 접근의 불완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²⁰⁾

이에 따라 점차 비용에 비해 열악한 사서진에 대한 해결방안과 보다 체계적인 중앙통제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사서들이 학과도서관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중앙통제식 도서관운영과 교수들의 학과와 위치적으로 가까운 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주장은 일정한 타협을 모색하게 되었고 해결책의 하나로 연관된 주제의 학과도서관들을 큰 주제의 도서관으로 묶는 방법 즉, 인문과학, 사회과학, 과학 및 응용과학 등의 대주제로 장서 및 서비스를 구분하는 도서관의 주제별화가 등장하게 되었다.

독립된 열람실과 적절한 주제교육을 받은 사서에 의해 운영되어지는 곳에 장서를 주제별로 나누어 보관해야 하며 대학도서관의 경우 자료의 분류를 4개로 나누고 각각의 주제들이

16) 남태우, “대학도서관에 있어서의 분관제도에 관한 고찰,” 국립대학도서관보, 제13집(1995), p.10.

17) Edward Roy Johnson, “Subject-divisional organization in American University libraries, 1939-1974,” *Library Quarterly*, Vol.47, No.1(1977), p.26.

18) Edward Roy Johnson, 1974, *op. cit.*, p.11-12.

19) Edward Roy Johnson, 1974, *op. cit.* pp.34-35.

20) 남태우, *op. cit.* p.11.

다른 층에 위치한 고유의 열람실을 가져야 하며 공공도서관의 경우 10개의 주제로 구분된 주제열람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던²¹⁾ William F. Poole의 사상도 20세기 초 미국 도서관의 주제별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맨 처음 넓은 범위의 주제구분이 이루어진 곳은 1895년 순수미술과 산업미술을 위한 열람실에 이어 1897년 음악을 위한 주제열람실을 설치한 Boston공공도서관(Boston Public Library)이었다.

1925년 Cleveland공공도서관(Cleveland Public Library)은 대출 및 일반참고실 운영과 잡지, 신문 등의 자료유형에 의한 구분 및 어린이들과 청소년 등을 위한 이용자영역으로의 구분과 함께 자료들을 문학, 외국어, 경제, 과학과 기술, 철학과 종교, 사회학, 역사, 여행과 전기, 그리고 미술 등의 주제별로 구분하였다.²²⁾

1933년 Baltimore의 Enoch pratt공공도서관(Enoch pratt Free Public Library)은 분리된 각 주제별 열람실은 없었지만 일반참고부서와 일곱 개의 주제로 장서를 구분하였다. 즉, 도서관 밖과 직접 연결되어있는 1층에는 책상과 목록, 열람공간, 신간들을 개가식으로 배열하였고 이용이 적은 도서들은 보관서고에 배열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주제구분에 있어 유연성의 필요가 인식됨에 따라 장서배열에 대한 고정화된 일반열람실을 지양한 최초의 시도였다.

이렇듯 1930년대 말까지 주제별화는 공공도서관의 조직과 서비스에 있어 주된 유형이었으며 이러한 조직유형은 대학도서관의 주제별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2. 발전기 : 1940년 ~ 1960년대 중반

미국대학도서관에 있어 주제별화는 1930년대 말에 시작되었다. 즉, 공공도서관 주제별화의 영향과 일반화교육운동, 대학조직의 구분개념, 학제간 연구의 강조, 학부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인식의 증가, 전문화된 주제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 그리고, 일부사서들에 의해 고취된 대학도서관에 있어서의 도움과 같은 요인들이 대학도서관 주제별화의 원인이 되었다.²³⁾

또한 모든 지식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관성은 한 주제영역으로 정의되지 않는 과정에 의해 보다 명확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의해 1910년경부터 시작되어 1930년대 많은 대학에서 채택했던 개설(概說)강의(Survey course)도 대학도서관 주제별화 개념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²⁴⁾

최초로 대학도서관에 주제별화의 개념 적용을 제안한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의 Charles Rufus Morey교수였다.

Morey교수는 1932년 Princeton대학(Princeton University)의 이상적인 도서관 조직에 관해 관련된 자료의 서가 가까이에 교수연구실과 대학원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각층별로 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도서관이 학생들의 학

21) William F. Poole, "The Construction of Library Buildings," Circulars of Information of the Bureau of Education, No.1(1881), p. 12, Edward R. Johnson, 1977, p.25에서 재인용.

22) Edward Roy Johnson, 1974, *op. cit.* pp.32-33.

23) Edward Roy Johnson, 1977, *op. cit.* p.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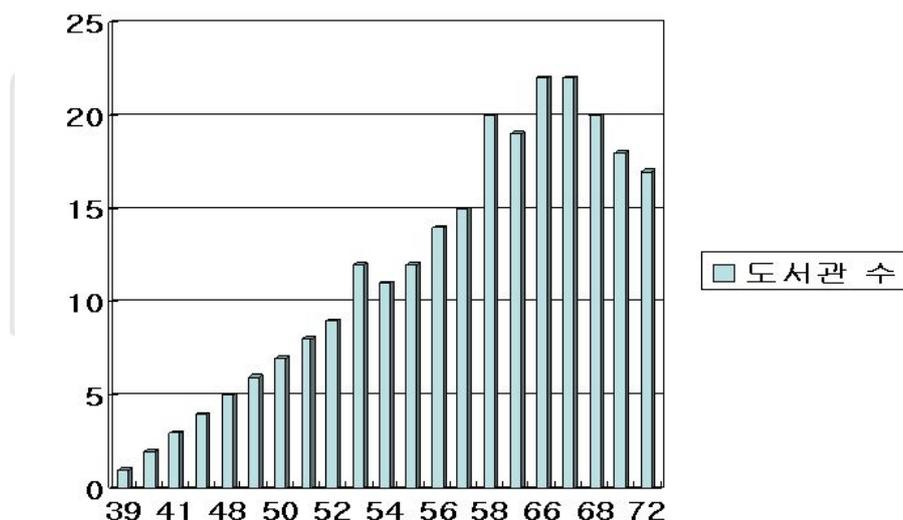
24) Edward Roy Johnson, 1974, *op. cit.* p.14.

문분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4개로 구분된 대학의 교과과정에 맞추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비록 구현되지는 않았지만 대학도서관의 주제별화 도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기본적으로 자신이 연구하는 학문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와 전체 학문과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주제별화에 영향을 주었다.

최초로 대학도서관에 주제별화가 채택된 것은 1939년 교과과정의 개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4개의 주제로 구분했던 Brown대학(Brown University)이었으며 제일 마지막으로 주제별화를 채택한 도서관은 1967년 Houston대학(Houston University)이었다. 약 30년에 이르는 이 기간 중 전체 26개 대학도서관이 주제별화를 채택하였는데²⁵⁾ Stanford 대학도서관과 North Carolina 대학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서규모와 이용자수에 있어 대체로 중형규모의 대학도서관이었다.

이렇듯, 1940년과 50년대에 걸쳐 점차 주제화 구분계획은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인식되어 졌으며 점차 대학도서관 조직구조와 서비스에 있어 대안으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1> 주제별화를 채택한 대학도서관 수의 변화

주제별화의 장점에 대해 Wilson과 Tauber는 첫째, 학생들이 그들의 연구를 집중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영역의 제공 둘째, 학제간 연구와 교육을 위한 기회의 증가 셋째, 제공되는 과정들의 집중화 가능 넷째, 중복 과목의 제거 다섯째, 보다 결집된 운영단위 등의 장점을 내세우며 주제별화가 새로운 건물이나 오래된 건물에 대한 재건축에 있어 신중하게 고려

25) 26개 도서관은 다음과 같다.

Brown University, University of Colorado, Drake University, University of Florida, University of Georgia, University of Houston, University of Idaho, Idaho State University, Kent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Nebraska, University of New Mexico, Louisiana State University, Michigan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University of Notre Dame, University of Oklahoma, Oklahom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Oregon, Oregon State University,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Syracuse University, University of Utah, Washington State University, Wayne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Wyoming

할만한 내부배열 체계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하였다.²⁶⁾

이러한 장점들이 부각되며 대학도서관에 도입되기 시작한 주제별화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본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 기술적서비스와 행정을 제외한 도서관의 기능들을 주제분야(예:사회과학, 인문과학, 비즈니스와 경제학, 과학 및 기술과학)로 구분하는 것 둘째, 과별 또는 세미나도서관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자유롭게 개방된 자료접근이 가능할 것 셋째, 직원은 주제전문가일 것 넷째, 분열된 교과과정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일반교육을 지원할 것²⁷⁾등이었다.

주제별화를 채택한 대학도서관들의 시기와 규모<표 1>를 보면 주제별화 계획을 채택한 때의 대학도서관은 평균 7.5개의 학과도서관과 454,930권의 장서, 9,055명이 학생과 53명의 도서관직원 그리고, 509명의 교수를 가지고 있었으며, 1974년에 주제구분계획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경우 평균 5개의 과별도서관과 1,105,184권의 장서, 16,701명의 학생, 129명의 도서관 직원과 1,479명의 교수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제별화를 채택한 대학도서관들이 모두 장서규모와 이용자수에 있어 중소규모대학 도서관이었다는 사실을 통해 당시 주제별화가 중소 규모의 대학도서관에서 선호되어지고 보다 잘 적용되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 주제별화 적용 도서관의 비교 통계

26) Louis Round Wilson and Maurice F. Tauber, *The University Library: The Organization, Administration, and Functions of Academic Libraries*, 2nd ed.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6), p.147.

27) J. R. Blanchard, "Departmental libraries in divisional plan university librari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14(1953), p.243.

Library	Date		Departmental Libraries		Number of Volumes		Number of Students		Number of Library Staff		Number of Faculty	
	Begun	Ended	Start	End or 74	Start	End or 74	Start	End or 74	Strat	End or 74	Start	End or 74
Still with Plan												
Brown Univ.	1939		18	2	573,229	1,466,578	2,001	5,764	43	158	262	755
Hoseton Univ	1967		3	5	421,150	664,469	19,986	26,500	33	35	488	1,490
Idaho Univ.	1957		1	1	168,487	727,111	3,717	6,985	34	39	279	550
Idaho State Univ	1956		1	0	56,156	500,586	1,765	6,355	9	31	118	416
Louis. State Univ.	1958		2	3	749,826	1,178,524	10,268	22,031	92	108	659	2,000
New Mexico Univ.	1966		1	1	348,073	720,124	11,476	17,364	63	115	564	833
N. Carolina Univ.	1958		10	11	935,014	1,958,941	7,038	18,130	93	221	916	2,891
Oklahoma Univ.	1958		16	12	673,397	1,204,276	11,807	18,052	64	122	544	2,932
Okla. State Univ.	1953		23	1	306,104	1,073,583	8,313	19,251	-	78	434	-
Oregon State Univ.	1941		0	1	182,105	643,189	3,603	15,50	23	70	367	1,014
So. Illinois Univ.	1956		0	0	173,288	1,655,895	5,554	20,349	36	124	338	2,755
Syracuse Univ.	1966		21	15	761,341	1,536,276	23,849	19,104	163	186	1,640	1,602
Utah Univ.	1966		6	6	740,351	1,445,413	14,250	21,564	82	129	785	710
Wash. State Univ.	1951		19	2	600,000	931,378	5,364	14,463	48	118	360	1,491
Averages			8.6	4.3	477,751	1,121,882	9,071	16,529	60	110	554	1,495
Norm. Avgs.			8.2	3.8	474,779	1,103,901	8,448	16,595	55	107	500	1,463
Dropped Plan												
Colorado Univ.	1940	1964	8	3	307,387	839,540	4,211	13,380	23	116	262	1,154
Drake Univ.	1948	1954	3	3	105,539	138,595	4,314	5,216	-	15	220	204
Florida Univ.	1950	1967	4	7	407,486	1,213,855	12,414	19,640	84	178	619	2,258
Kent State Univ.	1958	1968	1	4	156,074	565,810	6,820	18,500	27	128	345	836
Mich. State Univ.	1955	1968	10	10	765,604	1,300,000	15,613	38,000	46	163	979	3,051
Nebraska Univ.	1945	1970	7	13	397,000	1,021,284	9,669	20,376	28	144	336	976
Notre Dame Univ.	1953	1972	5	8	358,889	1,054,553	12,749	7,948	52	113	560	940
Stanford Univ.	1949	1970	21	24	221,826	3,275,008	8,286	11,545	61	360	613	1,283
Averages			7.4	9.0	404,976	1,071,311	9,260	16,626	46	152	492	1,338
Norm. Avgs.			6.2	7.5	398,740	859,480	9,042	15,231	43	140	456	1,241
Planning to Drop												
Georgia Univ.	1953		3	2	299,784	1,327,192	4,517	19,232	51	223	226	2,100
Oregon Univ.	1950		8	3	451,064	1,187,352	6,138	14,286	56	130	331	1,393
Wayne State Univ.	1952		0	0	417,430	1,480,536	20,307	26,481	48	187	674	2,570
Wyoming Univ.	1958		4	1	251,585	462,931	3,408	8,200	21	57	273	772
Averages			3.8	1.5	354,966	1,114,503	8,593	17,050	44	149	386	1,709
Overall Avgs.			7.5	5.3	454,930	1,105,186	9,055	16,701	53	129	509	1,479
(Normalized)			7.2	4.7	439,592	1,055,051	8,742	16,770	50	123	478	1,466

* 출처 : Edward Roy Johnson, *The Development of the Subject-Divisional plan in American University libraries*,(ph.D, University of Wisconsin, 1974), Appendix B.

3. 전환기 : 1960년대 중반 이후

대학도서관의 주제별화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한 60년대 중반이후를 주제별화의 쇠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제별화 측면에서의 쇠퇴기는 곧 새로운 도서관조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기라고도 할 수 있다.

처음 주제별화 계획을 철회한 대학은 1954년 Drake대학(Drake University)이었으며 Colorado대학이 1964년, Florida대학이 1967년, Kent주립대학과 Michigan주립대학이 1968년, Nebraska대학과 Stanford대학이 1970년 그리고, Notre Dame대학이 1972년에 주제별화를 철회하였다. 그리고, 1974년 조사에 의하면 4개 대학 즉, Georgia 대학과 Oregon 대학, Wayne 주립대학 그리고, Wyoming 대학이 다른 형태로 재조직하기 위한 계

획을 가지고 있었다.²⁸⁾

주제별화를 철회한 8개 대학도서관을 비교해보면 철회당시 평균 9개의 분관도서관과 1,071,311권의 장서, 16,626명의 학생, 1,338명의 교수 그리고, 152명의 도서관 직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주제별화를 철회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대학도서관들의 경우 1.5개의 분관과 1,114,503권의 장서, 17,050명의 학생과 1,709명의 교수 그리고, 149명의 도서관 직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의 크기와 학생수 그리고 도서관 직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간문제 즉, ‘공간의 비유연성’의 문제로 주제별화 계획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주제별화는 대형도서관보다는 중형(medium-sized)의 대학도서관에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던 Johnson의 주장²⁹⁾과 일치할 수 있다.

물론, Johnson의 주장대로 장서가 100만권을 넘어서고, 학생수가 15,000명 그리고, 도서관 직원이 150명에 도달하게 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조직의 문제는 어떤 도서관 조직유형에서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제별화의 목적은 대학원생이나 교수들을 대상으로 보다 세분되고 주제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보검색이나 도서관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대학생들에 대한 서비스의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즉, 넓은 주제영역으로 장서를 구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관 이용에 있어 대학원생이나 교수들보다 덜 세련된 대학생들에게 그들의 학문영역과 관련 영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문적 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주제별화 계획이 한창이던 시기에 나타난 학부도서관의 출현으로 더 한층 강조되기 시작했다.

Harvard 대학의 Keyes Metcalf가 처음 제안한 이 개념은 1949년 Lamont 도서관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점차 많은 도서관들에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학부도서관 개념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감에 따라 주제별화 계획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주제별화의 감소원인이 ‘비용’ 때문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 하지만, 비용은 주제별화 계획에 있어 단지 상대적인 요소일 뿐이다. 즉, 비용의 문제로 인해 주제별화 계획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비용에 관한 논쟁은 학과도서관을 통합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주제별화 계획을 철회하기 위한 이유로도 사용되었으며 학부도서관의 운영을 비판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결국, 이런 비용에 대한 문제는 도서관의 ‘목적’을 간과한 것이다.³⁰⁾

주제별화 계획의 초기 고려사항은 서비스의 질 즉, 보다 체계적이고 주제적인 참고봉사 제공의 개념이었으며 이러한 개념에서 볼 때 결코 다른 조직형태에 비해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것이 증명된 경우도 없다.

주제별화를 철회한 대학도서관의 예를 통해 주제별화 철회 이유를 보다 자세히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950년 주제별화를 도입한 Oregon대학(University of Oregon) 도서관은 인문학, 과학 그리고, 사회과학으로 장서를 구분하였다. 하지만 점차 전문화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주제 사서들이 늘어남에 따라 주제관에서 보다 깊이있는 참고봉사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참고실의 업무범위가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주제

28) Edward Roy Johnson, 1974, *op. cit.* p.180.

29) Edward Roy Johnson, 1974, *op. cit.* p.168.

30) Edward Roy Johnson, 1974, *op. cit.* pp.187-188.

별화는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학과도서관의 요구를 잠재울 수 있었으며 개별화된 서비스와 전통적인 참고봉사의 절충안으로 채택되어졌다. 하지만, 점차 주제별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간’의 문제와 ‘직원’의 문제 그리고, 장서의 분산과 서비스에 있어서의 경직성이 제기되면서 1973년 주제별화를 철회하였다.

Stanford대학(Stanford University)은 도서관 시스템에 대한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많은 수의 학과도서관들을 보다 넓은 주제의 도서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시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과도서관들의 행정적인 통합을 목적으로 1949년 인문, 사회과학, 생물학, 과학 및 공학으로 장서를 재배치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직원들의 재조직의 목적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장서의 재배치, 건물의 증개축 필요와 더불어 완성하기까지의 시간적소모와 성공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체되어지다가 1958년 인문학, 과학, 사회과학으로 통합하는 새로운 안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점차 1950년대 중반에 불기 시작한 학부생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으로 야기된 학부도서관에 대한 교수와 행정당국의 지원, 예산의 문제, 그리고, 학과도서관에 대한 끝없는 요구 등으로 점차 학부도서관과 학과도서관으로 분산되어 갔으며 결국 1970년 중앙도서관에 다시 일반참고실이 설치되었고 이에 따라 중앙도서관, 학부도서관, 26개 학과도서관, 그리고 6개의 ‘Coordiante’ 도서관으로 재편됨으로써 주제별화가 종료되었다.

1953년 Notre Dame대학(University of Notre Dame) 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을 인문학과 사회과학으로 구분하고 과학도서관들은 분산시키되 행정적으로는 통합하는 체계로 재구성되었다. 그러나 이 조직구조에도 몇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학생과 교수를 포함해 사서조차 느끼는 구조적 혼란과 정기간행물의 복본구입문제 그리고, 참고자료들의 분산이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72년 주제중심적 구조(Subject-centered)에서 기능중심적 구조(function-centered)로 다시 환원되었다.³¹⁾

이상의 예로 제시된 대학도서관들의 주제별화 철회 요인을 종합해 볼 때 주제별화가 이용자들의 혼란 야기 즉, 학생들에게 도서관 이용에 있어 혼동을 주며, 주제전문가를 비롯한 자격있는 사서 수의 부족과 이들의 채용에 따른 어려움, 주제구분의 모호성과 잡지, 마이크로자료 배치의 어려움 그리고, 자료의 복본구입 및 참고자료의 분산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Stanford 대학과 Colorado 대학 그리고 Nebraska 대학도서관 등으로 하여금 주제별화계획을 포기하도록 했던 공간의 부족, 경직된 중앙도서관 건물 구조 즉, 건물의 제한성이 주제별화의 가장 큰 쇠퇴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³²⁾

이와 함께, 대학의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른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한 점과 주제전문가나 참고사서 혹은 이 둘의 중앙 집중화에 대한 요구, 비용감소에 대한 요구, 대학원과 연구용 장서의 분리 중요성 증가, 혼잡한 도서관 환경, 학과도서관의 성장, 재조직, 분리된 학부도서관의 설립도 주제별화의 쇠퇴 원인이 되었다.

또한, 대학 규모의 거대화에 따른 개별 학과의 분관과 학과도서관 설치 요구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제별화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IV. 국내 대학도서관의 주제별화 적용과정

31) Edward Roy Johnson, 1977, *op. cit.* pp.34-37.

32) Edward Roy Johnson, 1974, *op. cit.* pp.182-183.

미국 대학도서관 주제별화 구분방법에 국내 대학도서관 주제별화 진행과정을 적용시켜본 결과 본격적인 대학간 평가와 경쟁체제의 시작, 전산화의 도입, 이용자위주의 개념 도입 그리고, 도서관 중심에서 이용자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주제별화의 논의가 시작된 1990년대 전반기를 주제별화의 태동기로, 1995년 전남대학교도서관에 처음으로 주제별화가 도입된 시기부터 주제별화 적용 대학도서관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을 발전기로 구분할 수 있다.

1. 태동기 : 1990년 ~ 1995년

국내대학도서관의 경우 체계적인 도서관 역사가 짧고 규모상 1-2개의 분관(대체로 의학, 법학, 신학, 농학, 음악분야를 분관으로 유지하고 있다)으로 운영이 충분했기 때문에 과별 또는 주제별 도서관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대학과 대학도서관 대내·외 상황과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도서관 운영 및 조직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국내 대학도서관 주제별화 도입의 원인이 되었던 주변환경과 도서관 내·외의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들이 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즉, 개가제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외국의 사례와 국내 타대학도서관의 사례를 통해 개가제의 예들과 편리성이 점차 알려짐에 따라 이용자들이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요구하게 되었고 부족한 장서로 도서관을 폐가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관리 및 보존에 치중하던 도서관들이 도서관 운영방식에 대해 새로운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다.

둘째, 사회와 기업의 고객만족과 고객우선주의가 도서관에 소개됨으로써 도서관중심에서 이용자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기능적 조직구조에 대출여부의 구분과 관리의 편리성을 위한 자료형태별 조직구조가 첨가된 관리중심의 조직구조에서 점차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자료배치 및 조직구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셋째, 대학간 비교에 따른 경쟁이 시작되었다. 정부기관 및 언론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행해지는 대학의 각종 평가 및 비교가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대학 및 대학도서관의 대응방안이 일정정도 양적성장과 함께 서비스에 있어서의 발전을 모색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도서관들간에 타대학도서관의 변화와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모방과 도입이 성행하게 되었다.

넷째, 도서관에 전산화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즉, 수서, 정리, 대출을 비롯한 도서관의 기술적 업무가 점차 자동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편리한 서비스제공이라는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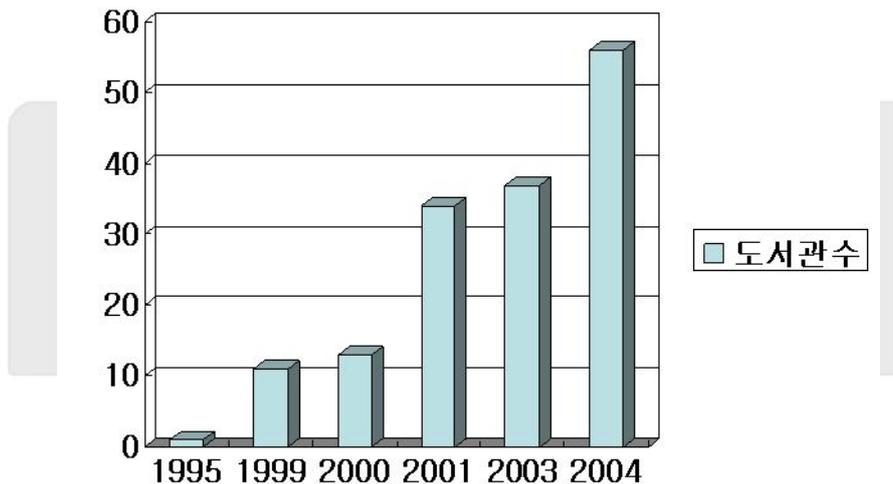
결국, 정보환경과 이용자의 변화 그리고, 이에 대한 대학도서관의 현실을 감안한 대응방안 모색이 주제별화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발전기 : 1995년 ~ 현재

1995년 전남대학교 도서관에 국내 최초로 중앙도서관의 자료를 주제별로 구분하고 자료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주제사서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주제별 자료실이 등장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자료구분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주제별화가 시작되었다.

물론, 국내의 경우에는 참고도서 혹은 정기간행물을 포함하거나 혹은 단행본만을 주제별 자료실로 나누거나 조직편제상 하나의 과단위 아래 하부조직으로 주제별화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자료의 주제적 구분과 주제별 서비스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주제별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의 조사를 보면 주제별화를 채택한 도서관의 수가 1995년 1개 대학에서 1999년 11개, 2000년 13개, 2001년 34개, 2003년 37개 그리고, 가장 최근의 조사인 2004년 1월 조사에서는 전체 조사대상 185개 대학도서관 중 56개 도서관(30.2%)이 자료구분 및 서비스에 있어 주제별화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³³⁾



<그림 2> 국내 주제별화 채택 대학도서관 수의 변화

이러한 주제별화가 미국에 비해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우선주의로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학간 경쟁체제 돌입 그리고, 평균 1·2개의 분관(의학, 법학, 음악, 신학 등)으로 충분하고 중앙도서관으로의 접근이 양호한 대학의 규모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대학도서관의 경우에도 주제별화가 도입됨에 따라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제사서의 충분한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주제사서와 일반참고사서의 구분이 없고 개별 대학도서관의 상황과 현실에 맞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한 시도가 자료의 구분만을 위한 형식적인 시도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 분석되고 있는 국내대학도서관의 주제별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면 학제간 연구의 경

33) 정재영, 남태우, “21세기 대학도서관의 주제별자료실 조직모형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1호 (2004), p.184.

우 동선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으며, 특정자료가 인위적인 구분으로 인해 다른 분야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즉, 주제구분의 적절성 문제, 자료의 중복구입 문제, 관리비용의 증가와 주제사서 양성에 따른 비용의 증가 문제, 질문할 분야가 애매할 경우 이용자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주제사서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경우 서비스에 있어서의 변화는 없고 단순히 자료의 구분만을 위한 형식적인 주제별화 구조로 전략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³⁴⁾ 또한, 전자형태의 정보 출현도 주제별화를 적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상에서 지적된 국내 대학도서관의 주제별화에 따른 문제점은 미국 대학도서관에서의 예와 서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국내대학도서관의 경우 앞으로의 진행과정이 미국 대학도서관의 사례와 같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더구나, 현재 대학도서관에서의 주제를 기반으로 한 운영이 학과와 주제로 이루어지는 대학교육 현실에 적합하고 대학구성원들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는데 있어 보다 효과적이며 한국적 대학도서관 규모와 상황에 적합하다는 인식과 함께 점차 사서의 주제적 전문화, 인원의 효과적인 활용이라는 도서관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 감에 따라 실험적 수준을 벗어나 개개 도서관의 특성과 장점을 반영한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³⁵⁾

V. 국내 대학도서관의 주제별화 방향 전망

미국 대학도서관의 예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국내 대학도서관에 확산되고 있는 주제별화가 대학도서관 조직구조의 발전과 성장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현상인지 아니면 한국적 특성 즉, 장서와 이용자의 규모에 있어 중앙도서관에 모든 기능과 서비스가 집중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상 고유한 형태로 발전하게 될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도서관의 기능과 서지통정상 도서관을 중앙통제하에 두려고 하는 사서들과 분산화를 통해 보다 전문화되고 밀착된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자료를 가까이 두기를 선호하는 교수들을 포함한 이용자들 사이의 대안으로 제시된 국내 대학도서관의 주제별화는 2000년을 기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국내 대학도서관의 경우 규모에 있어 약 210개의 분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Harvard 대학과 같이 대규모의 분관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도서관의 주제별화는 국내 상황을 고려한 나름대로의 적용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주제별화 계획의 이상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주제별화계획은 중규모 (medium-sized)의 대학도서관에 가장 적합하다고 한 Johnson의 주장대로 국내 대학 캠퍼스에 있어서의 지리적 분화 그리고, 대학도서관의 규모 및 시설 확장에 있어 급격한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주제별화가 미국과 같이 단기간의 유행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보기술 환경으로 인해 기능별 조직이 주제별이나 이용자별 조직으로 전환될 것”

34) 정재영, 남태우, *op. cit.* p.183.

35) 정재영, “주제관 경영측면에서의 대학도서관 조직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제11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정보관리학회, p.85.

이란 Altmann의 예언처럼³⁶⁾ 정보제공기술과 다양한 형태로의 정보 발달에 따라 자료형태의 부문화보다는 이용자를 중심으로한 서비스에 있어서의 주제별화가 중요시 될 것이다.

주제별화 계획의 적용에 있어 적절한 학생규모에 관해서는 Lundy의 경우 7,500명을³⁷⁾, Hunt의 경우는 7,000에서 10,000명이 적당³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주제별화를 위한 이상적인 이용자 수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조직 및 서비스형태와 마찬가지로 주제별화도 학생에 대한 사서의 비율이 높을수록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³⁹⁾

미래 대학도서관의 주제별화 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재와 같은 자료의 단순한 구분이 아닌 정보의 다양성과 정보전달수단의 변화에 따라 주제사서라는 인적요소와 이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될 것이다. 즉, 주제사서(Subject librarian)는 그가 맡은 주제부분에 관한 연구와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활동과 함께 주제분야에 대한 장서개발의 책임을 갖게⁴⁰⁾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주제적 지식과 관련 주제분야의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점차 특정 주제분야에서의 고도의 지식을 소유하고 그 주제분야내에서만 정보를 서비스해주는 이른바 전문가(specialist)가 아닌 중세도서관의 1인도서관 시스템(one-person library)으로의 회귀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⁴¹⁾

하지만 McNeal은 “주제전문가들은 이용자 개개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화학 관련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주제사서는 그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화학에 관련되어 있는 한 보다 잘 서비스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질문이 물리학이나 동물학 혹은 식물학에 관련된 것이라면 그는 보통의 참고사서와 거의 같은 주제배경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과학적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을 것과 과학자들의 요구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참고사서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뿐이다.”⁴²⁾라고 주장하며 주제사서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제별화가 물리적인 구분보다 주제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서의 확보와 이러한 사서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가지며 이러한 서비스 철학이 중심이 되는 조직유형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전자형태 자료 수집 및 이용의 증가와 다양한 도서관내 업무의 자동화에 따라 전산 업무를 담당할 조직에 대한 고려와 함께 전자자료의 선정에 있어 형태에 의한 조직은 기술적 전문가에 의해 선택되어지겠지만 주제에 의한 조직은 이용자들의 요구를 적절히 판

36) Anna E. Altmann, "The Academic Library of tomorrow : Who will do what?" *Canadian Library Journal*, Vol.45, No.3(June, 1988), p.152.

37) Frank A. Lundy, "The divisional plan library at the University of Nebraska; Its development, its significance, its contributions," *Mountain-Plains Library Quarterly*, 15(Summer, 1970), p.9.

38) Donald R. Hunt, *Description and Evaluation of the divisional plan of organization in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es*, University of Michigan, 1954, p. 21.

39) Edward Roy Johnson, 1974, *op. cit.* p.171.

40) Daniel P. Bergen, "University Library organization as a response to University Emphases," *Library Quarterly*, 32(January, 1962), p.30.

41) 남태우, *op. cit.* p.22.

42) Archie L. McNeal, "Divisional Organization in the University Library," *University of Tennessee Library Lectures*, No.12(1960), pp.45-46.

단하고 실제적인 이용과 서비스까지 책임을 져야할 주제사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전자형태의 자료에 대한 선정과 서비스에 있어서도 주제사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대학도서관의 주제별화는 자료의 공간 및 지리적 근집성을 중심으로 장서개발의 체계성과 균형성, 정보봉사의 전문성과 통합성,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해 먼저 단일의 건물에 모든 자료를 수장하는, 즉 공간적 근집성이 불가피한 경우 소수의 학문영역으로 대별하여 각각 장서개발과 봉사기능을 수행하되 수집 및 처리기능은 별도의 부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수의 건물에 주제별로 배치하는 즉, 지리적 근집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장서개발에서 정보봉사까지의 제기능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직능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보네트워크가 실물공간과 가상공간의 인터페이스로 작용하는 환경에서는 모든 학술정보를 주제별로 분산화하는 조직체계가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시키는데 유리하다.⁴³⁾

따라서,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의 주제별화는 장소적 제한과 장서 및 인력구조적 한계에 의해 과의 하부조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학규모 및 대학도서관의 장서량 증가에 따라 점차 주제도서관과 주제분관 형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대학도서관 수명주기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학도서관 조직을 불변하는 정적 무기체(스냅사진)가 아니라 변화와 발전을 계속하는 동적 유기체(동작사진)로 인식할 때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조직 개편이 가능하기 때문에⁴⁴⁾ 전자자료와 같은 형태별에 따른 자료형태별 구분과 서비스에 있어서 보다 전문화되고 밀착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제별화로 인해 전체적인 조직구조는 현재와 같은 주제별화가 아닌 점차 복잡화된 혼합형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주제별화는 그 기본적인 특징들은 계속 존재하겠지만 이용자들의 요구를 강조하고 사서의 계속교육 과정이 포함된 전체적인 서비스철학(Philosophy of service)의 일부분으로서 남게 될 것이다.⁴⁵⁾

이는 현대의 도서관이 이용자에 대한 봉사를 중요시하고 있는 이상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기 때문이며⁴⁶⁾ 사서의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도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VI. 결론

주제별화의 적용에 따른 도서관 내외 상황들과 진행 및 쇠퇴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논리성보다는 실용성에 기반을 두고 발전하기 시작한 주제별화는 첫째, 미국 대학도서관의 경우 19세기 후반 독일로부터 유래된 세미나 방법론의 도입과 이에 따른 실험방법론 및 도서에의 직접적인 접근 필요성의 제기 그리고, 중앙도서관에서의 충분한 장서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 따라 늘어나기 시작한 학과도서관들이 점차 서지통정의 문제점, 비용의 낭비, 도서관자료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 안정성의 결함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43) 윤희운, *op. cit.*, p.151.

44) 윤희운, *op. cit.*, p.134.

45) Edward Roy Johnson, 1974, *op. cit.*, pp.195-196.

46) Marie Angela Bastiampillai and Peter Harvard Williams, "Subject specialization re-examined," *Libri*, Vol.37(1987, 9), p.208.

중앙통제의 필요성을 인식한 도서관과 지속적인 학과 및 분관도서관을 요구하는 교수들간의 타협점 및 해결책으로 등장하였다.

둘째, 미국대학도서관의 주제별화 과정은 대학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발전기이자 대학교육의 철학적 변화가 시작된 1890년대부터 공공도서관들의 주제별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대학도서관에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1930년대 말까지를 대학도서관 주제별화의 태동기, Brown대학에 주제별화가 최초로 도입된 1939년부터 대학도서관에 점차 주제별화 도입이 줄어들기 시작한 1960년대 중반까지 약 25년간을 주제별화의 발전기 그리고, 학부도서관개념의 도입과 지속적인 이용자들의 학과도서관에 대한 요구 그리고, 대학규모의 확장에 따른 적절한 주제별화의 대안제시 부족에 따라 점차 주제별화를 철회하기 시작한 1960년대 중반 이후를 새로운 조직시스템으로의 전환기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미국대학도서관에 적용한 주제별화의 구분방법에 따라 국내 대학도서관의 주제별화 과정을 구분해본 결과 점차 본격적인 대학간 평가와 경쟁체제의 시작, 전산화의 도입 그리고, 이용자위주의 개념 도입에 의해 도서관 중심에서 이용자중심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된 1990년대 전반기를 주제별화의 태동기로, 1995년 전남대학교도서관에 주제별화가 도입된 시기부터 주제별화 적용 대학도서관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을 발전기로 구분할 수 있다.

넷째, 국내 대학도서관의 주제별화는 당분간 미국 대학도서관에서의 주제별화가 쇠퇴한 원인 중 하나였던 규모 및 시설에 있어서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대학도서관 주제별화 도입시기의 대학규모와 장서량, 이용자수 등이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의 상황과 비슷하고,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또한 유사하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주제별화의 쇠퇴원인 즉, 기술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자료들에 대한 방안과 장서량 증가에 따른 공간 유연성의 확보 그리고, 주제사서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다섯째, 전자형태 자료의 증가와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의 창출노력에 따라 도서관의 조직구조가 점차 복잡한 혼합형 구조의 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제별화의 중요성이 자료의 구분보다는 서비스가 될 것이며 주제별화는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만족을 강조하고 사서의 계속교육과정이 포함된 전체적인 서비스철학의 일부분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남태우. “DDC초판과 2판의 비교연구.” 문헌정보학논총, 이재철교수 정년기념논문집, 1994, pp.183-216.
- 남태우. “대학도서관에 있어서의 분관제도에 관한 고찰.” 국립대학도서관보, 제13집(1995). pp.1-24.
- 남태우, 정재영. “대학도서관의 주제별 운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2(2003), p.163-185.
- 사공철 등편.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6.
- 윤희운. 대학도서관 경영론. 대구 : 태일사, 2002.
- 정재영. “주제관 경영측면에서의 대학도서관 조직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제11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정보관리학회, pp.81-86.

- 정재영, 남태우. “ 21세기 대학도서관의 주제별자료실 조직모형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1호(2004), pp.173-197.
- Altmann, Anna E. "The Academic Library of tomorrow : Who will do what?" *Canadian Library Journal*, vol.45, No.3(June, 1988), pp.147-152.
- Bastiampillai, Marie Angela and Peter Harvard Williams. "Subject specialization re-examined." *Libri*, Vol.37, No.3(September, 1987), pp.196-210.
- Bergen, Daniel P. "University Library organization as a response to University Emphases." *Library Quarterly*, 32(January, 1962), pp.19-39.
- Bestor, Arthur E. "The Transformtion of American Scholarship, 1875-1917.," *Library Quarterly*, 23(july, 1953), pp.164-179.
- Blanchard, J. R. "Departmental libraries in divisional plan university librari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14(1953), pp.243-248.
- Branscomb, Harvie. *Teaching with Books: A Study of College Libraries*. Chicago : 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 and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40,
- Hunt, Donald R. *Description and Evaluation of the divisional plan of organization in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es*, University of Michigan, 1954.
- Johnson, Edward Roy. *The Development of the Subject-Divisional plan in American University libraries*, Ph. D. University of Wisconsin, 1974.
- Johnson, Edward Roy. "Subject-divisional organization in American University libraries, 1939-1974." *Library Quarterly*, Vol.47, No.1(1977), pp.23-42.
- Lundy, Frank A. "The divisional plan library at the University of Nebraska; Its development, its significance, its contributions." *Mountain-Plains Library Quarterly*, 15(Summer, 1970), p.3-12.
- McAnally, Arthur M. "Co-ordinating the Departmental Library system." *Library Quarterly*, 21(April 1951), pp.113-119.
- McNeal, Archie L. "Divisional Organization in the University Library," *University of Tennessee Library Lectures*, No.12(1960), pp.39-50.
- Poole, William F., "The Construction of Library Buildings." in U. S. Bureau of Education. Circulars of Information, No.1 (Washington: U. S. Govt. Print. off., 1881), p.12, Edward Roy Johnson 1974, p.46.
- Prytherch, Raymond John. *Harrod's Librarians' glossary*, 8th, Aldershot : Ashgate Pub, 1995.
- Young, Heartsill, Terry Belanger,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3.
- Wilson, Louis Round and Maurice F. Tauber. *The University Library : The Organization, Administration, and Functions of Academic Libraries*, 2nd ed.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6.